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257명 신규 채용

교육행정직 226명·전산직1명·사서직 7명·시설직 8명 등 선발·작년 대비 17명 증가... 4월 19일부터 접수

전북도교육청이 202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발 예정인원은 총 257명으로 작년에 비해 17명이 증가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226명(일반 212명, 장애 9명, 저소득층 5명), 전산직 1명, 사서직 7명, 시설직(일반토목, 건축) 8명, 운전직 15명이다. 이중 시설직(건축) 3명은 특성학교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도로 되어 있거나,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탈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필기시험 원서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도교육청(<http://edurecruit.jje.go.kr>) 교직원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바로가기)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5일, 합격자 발표는 7월 5일, 인적성검사는 7월 10일, 면접

시험은 7월 22일 각각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8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운전직렬은 면접시험 기준 자동차운전면허증(제1종 대형 운전면허)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021년 10월로 안내됐던 운전직렬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6월로 변경됨에 따라 2021년도만 대형버스 운전경력 6개월 이상 요건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운전직렬에 대한 응시자격 요건이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신부와 장애인 등 신체장

애로 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 및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점자문제지, 낮낮이 조절책상,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지원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소식) 시험/채용/구직 > 지방공무원시험)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을 통해 도내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는 물론, 일선 교육현장이 한층 역동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초등 입학생 모두에

책 꾸러미 선물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411개교, 공립 특수학교 5개교 등 총 416개교 신입생 1만3,949명에게 책 꾸러미를 지원했다. 신입생이 없는 공립 초등학교 12개교, 공립 특수학교 1개교는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함으로써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학교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책 꾸러미 사업비는 1인당 26,000원으로, 학교의 특성과 신입생의 수준을 고려해 도서를 선정하고 입학식 때 전달하는 방식이다. 책 꾸러미는 3월 신학기 학교 적응기에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 등과 병행해 활용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이 독서교육으로 연결된다”면서 “입학식에서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교직원 승진 인사발령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는 지난 2일 대학본부 2층 총장실에서 교직원 승진 인사발령(3월 1일자)에 따른 사령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승진 인사발령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획처 행정주사보 김민욱(前 행정서기), 총무처 시설주사보 정광수(前 시설서기), 총무처 운전주사보 김민수(前 운전서기), 학생처 행정서기 전서령(前 행정서기보) 등이다. 김우영 총장은 “지금껏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직원선생님들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대학이 초등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3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제21기 학생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임명식 및 수료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학교 홍보는 우리가 앞장서요”

전북대 학생 홍보대사·SNS 홍보단 등 17명 임명

“전북대학교가 갖고 있는 우수성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대를 대외에 알리는 데 첩병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 홍보대사 12명과 SNS 홍보단 5명이 임명장을 받고 1년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3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제21기 학생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임명식 및 수료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김동원 총장은 이승민 학생(3년)을 비롯한 12명의 신입 홍보대사들과 송해림 학생(3년) 등 5명의 SNS 홍보단 학생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전북대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강하은 학생(4년) 등 15명의 20기 학생홍보대사와 김혜준 학생(3년) 등 9명의 SNS 홍보대사 등 지난 한 해 활동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학생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대학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비롯해 행사 지원, 입시홍보, 내방객을 위한 캠퍼스 투어 진행, 각종 영상물 촬영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SNS 홍보단 학생들은 카드뉴스, 브이로그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개발·제작해 전북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승민 학생(21기 학생 홍보대사 대표)은 “우리대학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이들과의 따뜻한 동행을 통해 알찬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성인 여성 위한 ‘전북도립여중고’ 제24회 입학식

신입생 49명 입학... 44세부터 83세까지 연령대 다양

“성인 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희) 제24회 입학식이 3일 학교 강당에서 진행됐다. 지난 2월 신입생 선발 시험을 거치고 나서야 배움의 기회를 다시 찾게 된 신입생 49명(중1, 25명, 고1, 24명)은 설렘 속에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됐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던 편입생 2명을 포함해 올해 신입생은 최연소 44세부터 최고령자 83세까지 다양한 연령대 성인여성들이 배움의 길을 찾아 모여들었다. 신입생들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학교생활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지난 1998년에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전북도가 설립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이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입학식 49명을 포함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1,896명이 입학하게 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2021학년도 재학생 평균 연령이 64.1세다. 2021년에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실현과 졸업 후 취업연계를 위한 동아리 활동과 대학진학을 위한 진로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성인여성 학생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발판이 돼 주는 명문중고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적인 인성교육,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신입생 정원모집을 위해 추가접수를 진행하고 있어 뒤늦게 신입생 모집 소식을 접한 학생분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063-290-6892)으로 연락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사진 왼쪽부터 기일서·기미정 부녀.

‘부너지간의 따뜻한 동행’

정읍서 태권도장 운영 기미정 관장으로부터

태권도 배운 기일서씨 승단 심사 응시 ‘화제’

지난 2월 28일 열린 2021년도 제1차 전북지역 태권도 승품식에서 단 방문심사에서 부너지간으로 딸(기미정·31)에게 태권도를 배운 아버지(기일서·64)가 승단심사에 응시해 화제다. 정읍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미정(31) 관장은 우석대학교를 졸업 후 체육관을 개관했다. 평소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아버지 건강까지 걱정이 된 기미정 관장은 1년 전 아버지에게 태권도를 제안하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평소 아버지의 건강이 염려스러웠던 기미정 관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늦은 저녁시간을 활용해 동네 어른들과 함께 실버태권도 훈련일정 시간표를 만들어 태권도를 지도했다. 기미정 관장은 “딸이 체육관 개관을 준비하기 전에 태권도 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해 도전할 수 있

도록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다”며 “오늘 아버지의 도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바였다”고 말했다. 또한 “항상 노력하고 변화하는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다”며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2단 심사도 도전하는 등 꾸준히 건강에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버지 기일서 씨는 “딸에게 배운 태권도로 인해 가정이 화목해지고 딸과의 거리감도 없어진 것 같다”며 “태권도로 삶의 목표를 세워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지켜 나가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신대인읍이 고향인 기미정 관장은 엘리트 태권도 겨루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단을 육성중이며, 도내대회 및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엘리트 육성 태권도장이다. /장은성 기자

신입생들이 자신의 꿈 펼치도록...

호원대, 희망디딤돌 동기유발 프로그램 진행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4일까지 2021 희망디딤돌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희망디딤돌 동기유발 프로그램’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으로서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함께 대학생활에 대해 주도적 태도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취업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학습동기를 유도하며 대학생의 초기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일 학부(과)별 입학식을 시작으로 ‘START! 희망디딤돌’의 개학과 함께 각 학부(과) 소개와 신입생 환영회 및 교수·선배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신입생들은 “이번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으로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될 캠퍼스에서 학습동기가 새롭게 충전됐다”며, “대학생활을 미리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큰 도움이 되고, 또한 멘토 선배님과 교수님 및 동기들과 가까워져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무척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대학은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신입생들의 입학부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오 교양교육원장(창의인재대학장)은 “희망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호원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자부심 및 자긍심으로 학업과 취업에 있어 자기주도적인 참사(Charming) 브래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는 철저한 방역하에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을 실시간 ‘원격 비대면 수업’과 ‘대면수업’,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으로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2021학년도 호원대 신입생은 신입학 996명, 편입학 311명, 위탁신입학 217명, 위탁편입학 251명 등 총 1,775명이다. /장은성 기자

심장혈관외과에 이어... 예수병원, 성형외과 개소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이 안면거상술의 대가인 김주현 원장을 영입해 설대위기념 안센터 2층 외과 맞은편에 성형외과를 개소하고 지난 2일 개소식을 가졌다. 김철승 병원장은 “최근 심장혈관외과 개소에 이어 성형외과까지 개소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예수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과 우수 의료진 발골 및 영입을 통해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원장은 안면거상 및 주름살 제거 수술을 중심으로 눈, 코, 안면윤곽, 가슴수술 등의 미용성형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형외과

개업을 통해 얼굴 중심의 미용 수술 노하우를 쌓는 등 미용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김 원장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동안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최첨단 의료장비와 1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환자 개개인에 맞는 섬세하고 전문적인 수술로 삶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원장은 지난 2일부터 안면거상, 안면윤곽, 눈·코성형, 보톡스, 필러의 전문분야의 진료를 시작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한국합정PIA협회
PIA
FEDERATION OF INVESTIGATORS
KSPIA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